

# “천년의 시간여행, 전라도로 오세요”

2018 방문의 해 개막  
호남권 3개 시도  
국내관광 선도 선언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는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3개 시도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출항인사, 여행업계,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벌였다. (관련사진 3면)

선포식은 내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전라도가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 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천년스토리 강연과 비전영상 상영, 방문의 해 슬로건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선포식 후에는 세종문화회관 프락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조형물 제작과 전라도 명품여행에 참가하는 전라도 탐사단 출정식을 가졌다.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재명 전남지사 권한대행 및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원, 출항인사, 여행업계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권 3시도가 상호협력하여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전라도가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 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부한 문화유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천년을 선도해 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전라도는 예로부터 문예와 멋이 발달한 당당한 지역이었다.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의 우수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 공감가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긍정의 에너지를 모은다면 상생 화합의 공동체로 다시 당당하게 우뚝 설 것이다"며 전라도의 상생과 화합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당당한 지역이었다.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의 우수한 역사 문화 생태

오는 11일 춘천을 시작으로 대전 18일, 대구 25일, 부산 12월 2일, 인천 12월 9일에 다중집합장소에서 길거리 순회홍보를 하게 되며, 2018년에는 국내외 박람회에도 공동 참가해 전 세계에 전라도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바다의 청소부 해삼·홍합 종자 방류

전북연안해역 생태계 복원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기대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연안 수산 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해삼 종자 (크기 1~7g) 30만마리, 홍합 종자 (각각 0.6cm) 22만마리를 전북도 연안해역에 방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올해 6월에 생산, 5개월간 사육, 홍합종자는 올해 5월 중순에 생산하여 6개월 동안 실내 수조에서 사육, 국립수산물시험원에서 전염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이다.

특히 해삼은 해수부에서 지정된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품종으로 국내 해삼 생산량의 약 90%가 중국에서 소비되

고 있으며, 연안 정착성 품종으로 방류 2~3년 후에는 개체당 200g정도로 성장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바다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벨속의 유기물을 흡수함으로써 바다를 정화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홍합은 베타인, 핵산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숙취 해소에 좋으며, 간장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어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장 최영원은 "앞으로도 해삼 종자 등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생산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남원시 '힘 모으기'

시정현안 소통 정책협의회서  
업무협조·예산확보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9일 남원시청에서 시정현안 소통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미래로 도약 새희망 남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논의된 이날 정책협의회는 서남대 관련 정상화 방안 등 6개 시정현안사업과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등 4개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놓고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의 전반적인 제안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김춘진 도당 위원

장은 남원시 주요현안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통령공약사업인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추진과 관련해 핵심기술력, 시험노선 구간, 법령 마련 등 종합적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 5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다"며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道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문 활짝'

11억원 예산 투입 개소 준비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총괄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완주군 상관면(舊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개소했다.

도는 그동안 관리대상시설 증가와 안전관리규정 강화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창군에 위치한 기존 도로관리사업소만을 통한 시설작업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

로가 있었다.

특히, 긴급한 재해복구, 제설 등 도내 타지역으로의 출동시 최장 2.5시간 이상 소요되어 기능성이 취약하고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폭설 폭우 등 긴급성 재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작년 관련규정을 개정, 북부지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37년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맞춰 보수 보강을 실시하

는 등 개소 준비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마무리 했다.

개소에 따라 향후 북부지소에서는, 건설기계 40대와 차량 18대 등 자체 보유장비 및 자재를 투입하여 각종도로 응급복구, 제설작업, 긴급출동 지원 및 재해대응 업무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도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및 시설개선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환복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10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산의료원이 내부지침과 규정에 근거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학술위원회, 건축추진위원회 등은 단 한차례도 소집회의나 서면 대체회의를 하지 않았다.

송성환 의원은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군산의료원의 각종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4대강 3개보 신규 개방  
나머지도 추후 개방 추진

정부가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 중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강 여주보를 모두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주변에 생활용수 취수장이 없거나 조류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설치된 7개 보를 새로 개방하거나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개방된 보의 숫자는 6개보에서 9개보로 확대되며, 내년 봄 가뭄 이후 신규·추가 개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내년말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보 모니터링 대상을 6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 3개보가 수문이 새로 개

방된다. 이미 지난 6월 개방된 6개보 중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낙동강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보는 추가로 수문을 연다.

개방은 오는 13일 오후부터 단계적으로 개시된다. 정부는 금강 세종·공주·백제보, 영산강 죽산보 등처럼 주변에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곳은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낙동강 합천창녕, 영산강 승촌보 등 취수장이 있거나 임시대책 마련이 어려운 지역은 시설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개방 수위를 결정하며, 내년 3월께 농업용수가 급하게 필요하면 수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보 개방이 하수 이용장에 등 주변지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표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진행하며, 겨울~봄철 갈수기 수계별 현장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